해설 정부 계획에 담길 '제주 발전방향안' 과제는

새로울 것 없는 '제주미래 20년 밑그림'

신항만·신교통수단 도입 등 진전 없는 대형사업 포함
도민 공감대 없는 기존 정책 되풀이에 신규사업 '미흡'
설득 논리 확보 등 요구… 도 "정부와 의견 조율 마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에 담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향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안에 담긴 대형 프로젝트들이 크게 새로울 게 없는 '재탕'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보상태 사업 수두룩=제주도 발전방향안에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이 중에는 정부 설득이 어려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답보상태의 사업들이 나열돼 있어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 과제로 제시된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은 아직 '신중모드'다. 해양수산부는 빠르면 이달 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는 3조원에 가까운 총사업비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도민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어 추진에 큰 진통을 얻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신교통수단의 도입 역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년째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업이며,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제주크루즈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국의 한한령 조치로 크루즈 뱃길이 끊긴지 오래다.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블록체인·전기차특구 조성 과제도 중소벤처기업부터의 심의를 넘기 못했다. 그나마 전기차 특구 조성 계획이 중기부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계획서 보완 요구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1차 심의에서 탈락했다.

제주형 웰니스관광개발 추진 사업도 마찬가지다. 제주형 웰니스 산업을 견인할 자원인 헬스케어타운이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0월 9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투자진흥지구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앙 절충 위한 논리 개발 필요=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국토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할 법정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K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호남제주권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중장기 정부계획과 지역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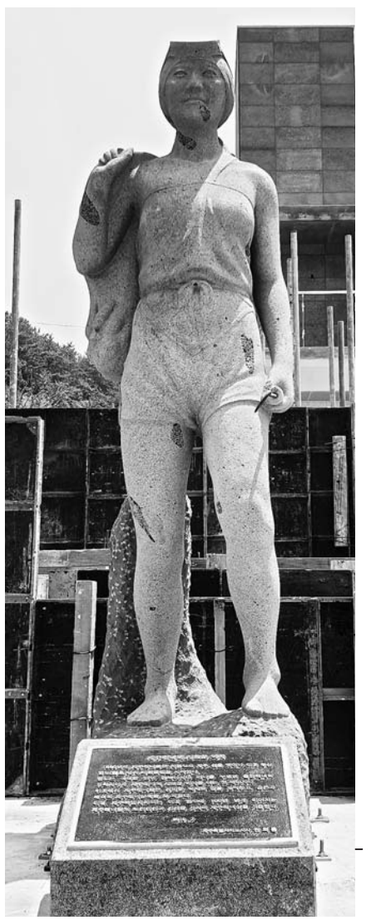
국토부는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보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계획에 제주도 발전방향안이 명문화되면 장기 프로젝트로서 추진 근거를 확보해 대중앙 절충력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문제는 정부 혹은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기존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고 신규사업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과제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논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발전방향안은 큰 그림을 언급한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별도다. 국가에 지역과제들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관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은 (계획에)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제주도 발전방향안은 이미 정부와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앞으로 조정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지난 4일 부산 영도해녀문화전시관 부지 내에 설치된 '전통 제주해녀상' 사진=제주도 제공

"창작활동 제한" 반발 산 '표준모델' 명칭 바꿔 '전통 제주해녀상'으로

도, 새 기준 필요시 논의

창작 활동 제한 논란이 불거진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의 명칭이 '전통 제주해녀상'으로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발표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과 관련해 '표준모델' 용어 사용이 작가의 창작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주조각가협회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전통 제주해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조각가협회, 해녀협회, 해녀상설치 자문위원, 디자인 전문가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각각 모습으로 설치되는 해녀상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훼손과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이번에 제시된 기본 기준은 전승보존이 필요한 전통해녀상을 설치할 때에만 사용하기로 했다.

전통 제주해녀상의 기본 기준은 30~40대의 진취적 얼굴 모습과 전통 물소중이 복장, 테왁 망사리, 쉐눈의 형태 등 전통 해녀의 원형을 표현하고 있다.

도는 향후 고무복 입은 해녀상 등 새로운 기본기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녀협회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산시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부지 내에 '전통 제주해녀상' 설치를 완료했다. 해녀상 제막은 오는 9월 전시관 개관식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증명서 번역 서비스 호응

최근 유학, 국제결혼, 국외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 번역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 번역서비스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008년부터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민원편의 시책이다.

2008년 149건이던 영문번역 신청건수는 매년 수요가 증가해 2017년 354건, 2018년 373건에 달했고 올해 6월말 신청건수도 이미 265건을 넘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영문번역서비스가 가능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번역은 담당직원이 하고 있어서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대로기자

2019 제주愛 빠지다 ① 용담1동 북카페 곱뜨락운영위

동네 사랑방 북카페의 색다른 변신

사진 위부터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탐방', 서자복을 활용한 '그림자 인형극'.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에 정착·지역주민 뜻 모아 마을 설화·역사 공유도

'서자복' 담은 인형극으로 마을 알리기 시도 '눈길' "살고 싶은 마을로 거듭"

동네 사랑방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한 북카페 곱뜨락이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지역주민들 속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용담1동 북카페 곱뜨락운영위원회(회장 권경희)는 주민센터 2층에 자그마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6년전인 2013년 7월 곱뜨락 개관 및 곱뜨락운영위원회가 창립됐다.

설립목적은 지역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책과 커피가 있는 북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소통과 교류 도모 및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함이었다.

북카페는 당시 김기성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방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것을 운영위원들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다. 곱뜨락운영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및 친환경 세제 만들기 교육 등 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운영을 보탰다. 더불어 매달 세째주 토요일에는 관내 장애인 시설의 목욕봉사가 이뤄졌다. 내실과 외연확장을 동시에 꾀했던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의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제고를 통해 마을 홍보에 나선 것이다. 원도심이어서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쇄락해가는 동네여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을홍보가 중요했다.

섣부른 도전일수 있지만 살고 싶은 마을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올해가 그 원년인 셈이다. '느영나영 손잡고 함께 사는 우리 마을 만들어 保開(보개)'라는 사업명을 내걸었다. 지역주민과 정착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은 물론 지역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마을설화와 문화역사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종전의 프로그램인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과 나눔은 계속 이어지고, 제주어배우기가 포함됐다. 더불어 지난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문화·역사 탐방&선비체험도 가졌다. 올 가을엔 향토음식체험의 기회도 마련한다.

권경희 회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권 회장은 특히 그림자 인형극을 통해 마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 동네에 있는 '서자복'을 그림자 인형극으로 재탄생시켰다. 서자복은 용화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미륵으로, 옛날 제주성의 서쪽에서 성 안을 수호하는 기능을 했다. 연극으로 마을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십분활용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가 묻혀있는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권경희 회장은 "마을의 설화와 문화 역사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알리고 공유하기위한 방법으로 인형극을 선택했고, 실제 마을 탐방을 통해 저 역시 새롭게 알게된 마을의 역사와 설화에 흥미가 생겼고 자부심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제고와 마을 홍보가 이뤄지길 바라며 더불어 자랑스럽고 살고 싶은 마을 이미지를 만들어 인구 유입 효과가 있기를 바라본다"며 "아울러 곱뜨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이다. 누구나, 언제나 편하게 오셔서 소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이웃들을 초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마늘·양파·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마 늘

○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농가가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1리

김OO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 밑거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 비 : 희토락F + 복비
○ 비 대 : 희토락F

※ 이노페스를 사용시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 · 양배추

○ 묘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지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엽면시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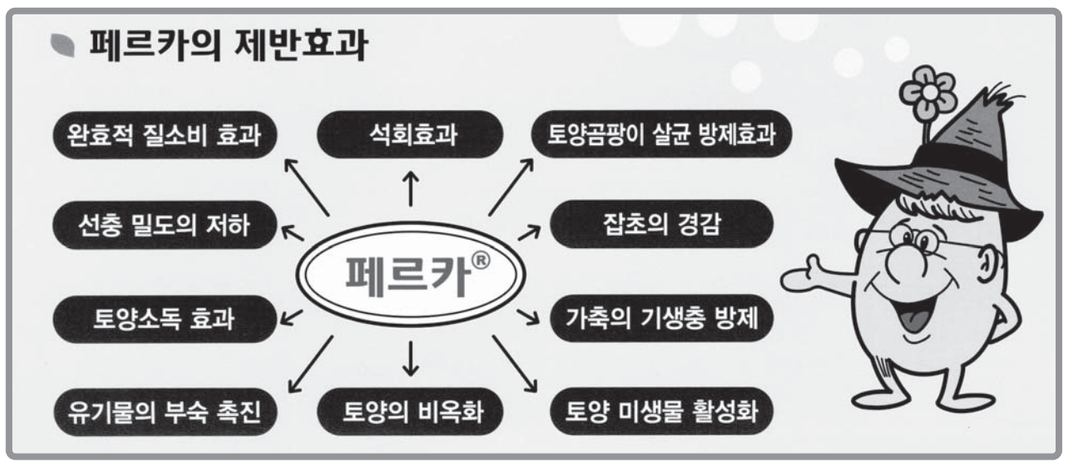
○ 브이(V)패스 : 500㎖ 1병 12.5말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 뿌리혹병, 마늘 잎지 썩음병, 감자 시들음병 등등..)

※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올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 · 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